

교양 특강

「일과 自我實現」

金 在 恩

(이대 사범대 교수)

1. 일과 인생

영어의 “Work”나 독일어의 “Werk”나 불어의 “Travaille”라는 낱말은 모두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낱말들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수고」라는 뜻(노동)과 「작품」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은 노동인 동시에 작품이 되는 셈입니다. 일이란 단순히 입에 풀칠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일 자체가 그의 인생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삶의 소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품이란 잘 되었던 못되었던 그의 정신의 열매이며 개인의 역사의 페이지들입니다. 따라서 애써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은 그의 인생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영어의 vocation이나 callings, occupation이나 독일어의 berufen이란 모두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직업이라는 일을 통해서 神의 부르심에 보답하는 것이며, 직업을 통해서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토마스·카알라일(Thomas Carlyle)은 “Blessed is he who has found his work—할 일을 찾아낸 사람은 福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생동안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일과 배우자를 바꾸는 일,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최근 미국통계에 의하면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은 2%에 불과하지만, 배우자를 바꾸는율은 무려 50%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인생살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결혼보다 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직자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예는 많습니다. 이래서 직업과 일은 중요합니다.

2.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통해서 사람은 自我를 實現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데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 자체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일 자체의 특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흥미

를 끌게 하느냐, 얹느냐, 하는 점입니다. 흥미를 끈다고 하는것은 興을 돋우고 맛(味)을 내게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직업에서 흥을 느끼고, 할만한 맛이 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은 '점일' 뿐이지, 작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발전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년 순경, 만년 출병, 만년 수위면 그 직업에 만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수위라 할지라도 年功이 붙어서 월급이 과장보다 많다든지, 수위에서 사무직이나 감독직으로 승진한다든지 하는, 발전·진보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직업에 오래 있을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돈입니다. 수입이 얼마나 좋느냐 하는전제, 이 조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학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수로 따져서 半도 안되는 대학교수직이 좋아서 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는 안전을 듭니다. 그 직업이 위험성이 적어야하고 또 원한다면 오래 있을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나 수입보다도 이 안전 또는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보람을 듭니다. 이 보람 또는 일의 사회적 가치가 이외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이 조건이야말로 주관적이기 보다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그에게 흥겹고 신바람나는 맛을 주는 것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몇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그 일에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2) 자율성이 허용되는 정도에 따라 일에 대한 흥미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바꾸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합니다.

(3) 그 일에서 요구되는 기능이나 기술이 얼마나 전문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흥미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별로 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하기 어렵거나 한다면 하더라도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 일때 보람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4) 사용하는 도구, 수속, 시설이 특별한 직업일수록 더 흥미를 느낍니다. 간호직은 그런 점에서 특수한 직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인정하기를 누구나 하는 직업이 아니고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갖는다는 인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5) 사회에서 자기의 고유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직업이 흥미있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언권이 센 직업일수록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까닭은 돈때문만이 아니라 그 일 자체때문에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데에 후생, 오락시설이나 작업조건을 개선하면 되는줄 아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조건들을 保障要因(hygienic factor)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의욕을 높이는 조건이라기 보다는 그 저하를 막는 구실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싶어 하게 하는 조건 즉 促進要因(motivating factor)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 일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일할 의욕을 돋구어 주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몇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1) 그 일이 挑戰的이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 한번 해 보자” “응 못할려고” “그것 한번 해 볼만해”와 같은 挑戰感을 주고 成就感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일 때, 사람에 대한 의욕이 생겨납니다.

(2)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책임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나,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콘베이어벨트에 실려오는 부품이나 납땜질 하는 것으로는 임금이 높아도 그리 신나지 않습니다. TV set를 예를 든다면, 「金아무개가 만든 TV」 「張○○가 만든 TV」 하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결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3) 참여의 기회가 많을수록 더욱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명령만을 이행하는 손발이 아니고, 「나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 더욱 일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바야흐로 참여의 시대이며, 이 참여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종업원의 능력을 그 기관의 목적에 集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이 참여를 통해서 「自我實現」의 폭과 기회를 확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Western Reserve 대학의 F. Herzberg교수의 이론을 빌리면 “관리자나 감독자가 ‘노동자란 원래 게으름뱅이여서 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치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發破시켜서 움직이게 해야한다’라고 정하고 덤비면, 그 企業은 아무리 하고 싶은 부하도 능력을 발휘할수 없다 일에 소극적이 되고 회사를 그만 두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욕을 높이려면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고, 뭔가 가치있는 일을 이룩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할 것이며, 일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일과 직장의 분위기, 즉 心理的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제도나 조직보다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영방식이어야 종업원들의 사기가 양양될 수가 있습니다.

3. 일의 즐거움과 自我的 實現

사람은 일을 왜 하느냐하면, 일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신바람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치어릴 때에 놀이에서 느꼈던 그 기쁨과 신바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 야구시합의 투수처럼 전력투구가 안되고는 일은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은 할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에게 자기 직업의 좋은 점을 신나게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은 경쟁상대와 겨루어 이기고 싶은 욕망때문에 일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정열을 기울이는 것은 버는 것, 그 자체이지, 그들이 쓰는 그 돈 자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일이란 “할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에게 짐이고 苦行이며 보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짓을 하지, 누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은 고통일 뿐입니다. 예술이건, 문학이건, 사업이건, 공부이건, 교양의 전설이건, 의무감에서 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는 傑作은 없습니다.

대체로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70%는 자기의 인생에서도 만족을 느끼며, 직업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의 14%만이 인생살이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직업에 몰두하는 사람만이 후세에 까지 남길 수 있는 일을 성취할 수가 있으며, 또 그런 사람만이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직업이야말로 자기의 전 생애를 걸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보기에 가소로이 보일만큼 三味之境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영원의 문제'이고 '나의 정열'이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열중하는 기분을 맛 볼때, 인간은 자기를 마음껏 實現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열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요? 직업은 우리의 정열이어야 합니다.

自我를 실현한다함은 곧 직업을 통해서이고, 직업을 놀이의 연장으로 지각되어야 기쁨과, 미치는 경험, 활짝 반하는 경험, 빠지는 경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즐겼다면 그 일 속에서 絶頂感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엑스타시(ecstasy)란 새로운 뭔가를 찾았을 때 느끼는 그 신선감, 감명 "야아!"하고 무릎을 치는 경험, 눈물이 흘러나올 만큼의 감격, 自憐을 잃을만큼의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감동. 전율, 환희, "제 정신이 아니야"를 외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벽을 뚫고 차라는 들쭉, 바위틈의 소나무처럼 강인한 生命力이기도 한 것입니다. 沒我, 忘我, 非利己, 無欲의 상태, 自我中心이 아니라 對象中心일때, "人生은 살 값어치가 있다"고 느낄 때, 이 세상에는 갈당할 목표가 있다고 느낄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 本質을 꿰뚫어 볼 때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에 신바람이 나게 되고 自己를 實現해 갈 수 있습니다.

絶頂의 경험에 이르려면 우선 배우는 기쁨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으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높혀 갑시다. 진짜의 자기를 느끼시다. 깊은 자기성찰을 합시다. 자기의 능력에 신뢰를 가집시다. 뭔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경쟁에 휘말려 들지 말고, 자기의 페이스대로 갑시다. 때로는 고독을 즐기시다. 무건의 일에 전념하는 集中力을 기릅시다. 자기의 가능성을 십분 실험해 봅시다. 신선한 눈을 가집시다. 그리고 경탄해 마지 않는 순수한 정신을 키웁시다.

자기가 맡은 일에 自發性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自我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밀려서 살지 말고 스스로 물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自我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문제에만 집착않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自我를 더 높게 실현할 수 있으며, 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내는 창조력을 가질 때 그는 自我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全力投求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自己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일에 미치십시오. 직업은 우리의 생애를 전, 그 정열이어야 합니다. ■

기증논문목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한 일연구, 이종영(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 교육전공) •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원(stressor)에 관한 일연구, 이명애(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 입원환자가 제공받은 건강정보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명숙(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선천태독의 임상적 고찰, 이강오(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간호인력의 적정기준에 관한 고찰, 이선훈(연세대 보건대학원) •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의·간호계 종사자 및 학생을 중심으로, 권혜진(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폐결핵환자의 화학요법이행에 관한 연구, 조동숙(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한국간호관계법령에 대한 조사연구, 이영자(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전공) |
|--|---|